

부산 | 10월 6일(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이(爾)

·극단 / 하늘개인날
·연출 / 박종필
·작가 / 김태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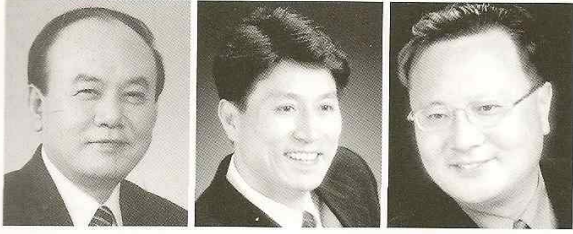
줄거리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로 폭군이 되어가는 연산과 그 곁에서 연산의 사랑을 통해 권력을 잃고 연산과 동성에 관계에 있는 공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산을 위로한다. 공길이 광대의 열을 잊은채 권력에만 빠지는 것을 안타깝게 느낀 우인 장생이 공길을 되돌려보려 하지만 공길은 장생을 외면하고 점차 왕의 사랑을 통해 권력을 얻게 되고 희락원의 대봉과 종 4품의 벼슬을 차지하게 된다. 공길과 녹수는 연산을 사이에 두고 더욱 권력싸움이 치열해지는데 공길을 소화지회를 통해 녹수의 비리를 하려하고 녹수는 그러한 공길을 처내려 공길의 글씨체를 베껴 그 글씨로 비방서를 쓰는 음모를 꾸미는다. 녹수의 음모에 걸려든 공길은 난감해 하는데 공길의 동성에 상대이자 같은 경중우인인 장생은 대신 음모를 집어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장생의 죽음을 통해 진정한 광대의 정신을 깨닫게 된 공길은 모든 권력을 버리고 진정한 광대의 놀이를 즐기며 스스로 자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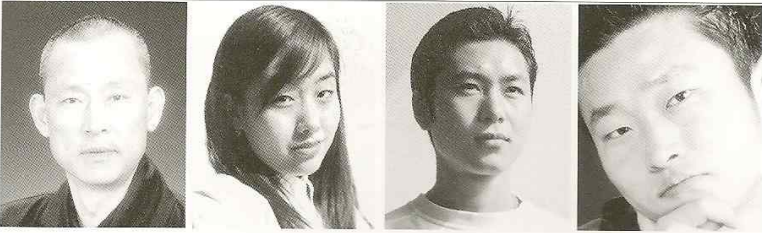
연출의도

역사의 중심은 항상 男子, 그것도 왕이 중심에 서 있다. 그러다 보니 역사는 항상 권력과 음모, 배신, 술수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되어져왔다. 「이」는 우리들의 이야기, 함축시키면 내 이야기이다. 『광대』 세속적 권력과 웃음의 본질 속에서 혼재되어 왔던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이곳'의 상황으로 풀어보고 싶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그 시대의 광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던져 주는가? 「이」작품에서 핵심적 의도가 바로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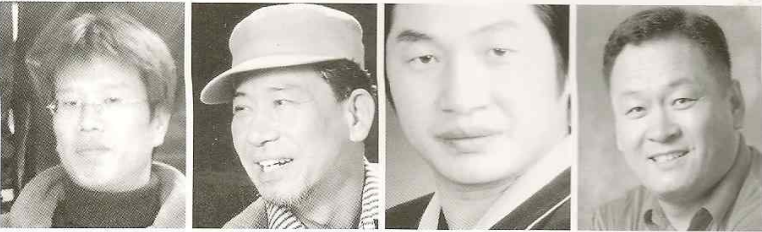
‘하늘개인날’ 연혁 ● 1988, 극단 하늘개인날 창단 ● 창단 공연 만다라 ● 1989, 돈 ● 1990, 카사블랑카어 다시한번 ● 1991, 원효대사 ● 1992, 로젤 ● 1992, 동의보감 ● 1993, 동의보감 ● 1994, 마술가게 ● 1994, 만다라 ● 1995, 우리들의 광시곡 ● 1996, 펜티 ● 1996, 배비장전 ● 1997,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 1997, 보잉보잉 ● 1998, 돌아서서 떠나라 ● 1998, 아버지 (제16회 부산연극제) ● 1998, 배비장전(제2회 남구 오륙도 문화예술제 기념공연) ● 1999, 느낌, 극락길은(제17회 부산연극제) ● 1999,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 1999, 이별의 부산 정거장 ● 2000, 조선제왕신위 (제18회 부산연극제) ● 2000,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 2000, 이별의 부산 정거장 ● 2000, 느낌, 극락길은 ● 2001, 아비 ● 2001, 동승 (연극협회 합동공연) ● 2002, 이(부산연극제) ● 2002, 고추말리기



부산광역시장 / 안상영 부산광역시연극협회장 / 권 철 극단대표 / 곽종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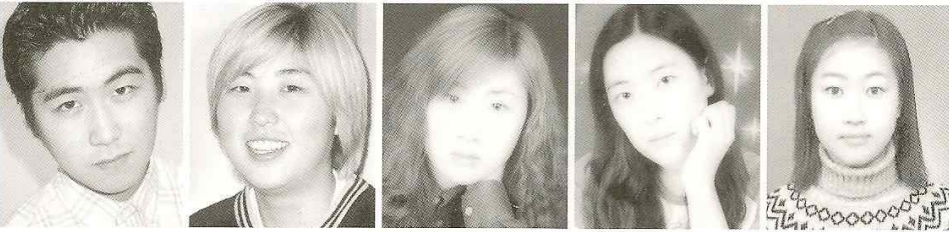
연산 / 이정허 녹수 / 김혜지 공길 / 윤진항 장생 / 김종만



홍내관 / 박호천 윤지상 / 어주선 박원중 / 황창기 정관수 / 고인범



공녀 / 김영하 벽사무리 / 이정희 우인1 / 최선정 우인2 / 도광원 우인3 / 신상준



우인4 / 허순봉 우인5 / 김현주 우인6, 공녀 / 옥혜숙 우인7, 공녀 / 오석연 우인8, 공녀 / 김선희



우인9 / 김진혁 우인10 / 최은주 우인11 / 김형준 우인12 / 서일환

부산

CAST

우인, 공녀 / 정서정
우인, 공녀 / 배하나

부산



연출 / 박종필



작가 / 김태웅



드라마트루기 / 박해란

STAFF



작곡 / 박철홍



조연출 / 최선정



안무 / 김죽엽



안무보 / 심미애



무대디자인 / 김유리라



무대미술 / 김인덕



무대감독 / 신봉석



무대장치 / 허남희

안무보 / 김의정
 안무보 / 장현경
 안무보 / 이정희
 안무보 / 윤자영
 안무보 / 이금희
 안무보 / 박인영
 무대장치 / 김육남
 음향 / 김범기
 놀이지도 / 허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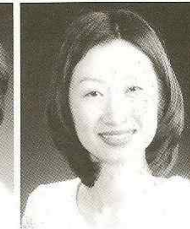
무대장치보/김영하



무대장치보/전미영



분장디자인 / 손서운



분장 / 박은주



분장 / 김승미



조명디자인 / 윤준호



의상디자인 / 김은엽



무대기술 / 이상환



소품 / 이력수



섭외 / 박선호



무술감독 / 오재석